

‘지스타 2016’ 개막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

벅스코, 입장 전부터 장사진 이뤄

젊은 남성 대부분... 가상현실 게임 체험 등 기대... 야외무대 다양한 이벤트 부스도 장사진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 2016’이 17일 부산 벅스코(BEXCO)에서 ‘그 이상의 것을 경험하라’를 주제로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지스타 개막식이 진행되는 오전 10시 이전부터 벅스코 제2전시장 앞 주차장은 입장권을 현장 구매하거나 초대권을 바꾸기 위해 늘어난 방문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20~30대 남성들이 주를 이뤘으며, 간간히 10대와 여성 관람객들도 눈에 띄었다.

이날 행사장에 나온 한 관람객은 “오늘이 수능이라 친구들과 함께 지스타 개막 행사에 왔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줄이 엄청 길네요. 주말에는 오늘보다 더 사람이 몰릴 텐데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라고 말했다.

지스타 관계자는 “오전 7시부터 사람들이 매표소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며 “매표 시작이 되는 11시57분에는 지금보다 사람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모바일로 이미 예약을 하고 지스타를 찾은 관객 수백여 명도 ‘모바일입장 전용입구’ 앞에서 나란히 줄을 섰다. 이날 입장객이 가능한 12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지스타 방문이 처음이라는 대학생 배도(22)씨는 “오늘 특별히 할 것도 없고 해서 친구들과 함께 지스타를 찾았다”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가려고 10시부터 줄을 섰다”고 설명했다.

친구 김도(22)씨는 “리니지2 레볼루션이 가장 기대된다”며 “가상현실



17일 부산 벅스코에서 개막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16’을 찾은 관람객들로 행사장이 붐비고 있다. 2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35개국의 게임업체 653곳이 참가한 가운데 신작 게임전시회를 비롯해 비즈니스 상담, 컨퍼런스, 채용박람회, e스포츠택회, 융복합 문화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VR) 게임도 많이 나온다면 체험을 해볼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벅스코 야외무대에 설치된 카카오톡 게임의 신작 모바일 게임 ‘프렌즈 팝콘’ 이벤트 부스도 장사진을 이뤘다. 지름 170cm의 대형 라이언 조형물이 설치된 프렌즈 팝콘 야외부스 앞에는 100여명은 줄을 서고 있었다.

카카오톡 부스에 방문하는 관람객에게 커널스팝콘과 함께 ‘지스타 한정 커널스팝콘’을 제공한다. 또 현장에

서 ‘프렌즈팝콘’ 게임을 다운로드 받은 관람객들에게는 라이언 풍선과 팝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또한 라이언네임택과 피크니매트, 라이언티셔츠 등을 제공하는 톨렛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카카오 외에도 넷마블과 톱툰코리아, 넥슨, 네이버, 엽게임 등이 야외 부스를 마련해 입장 시작 전부터 축제 분위기를 고조해 나갔다.

넷마블 역시 야외부스를 활용한 다

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넷마블은 휴대폰에 자사의 게임을 9개 이상 설치한 폰더를 만들면 선착순으로 지스타 입장권을 나눠준다.

이와 함께 넥슨 기프트샵과 포토존, 야외부스를 이용한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지스타는 전 세계 35개국에서 653개 게임 관련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인 2719개 부스 규모로 진행된다. /뉴시스

재능 공유 플랫폼 ‘히든’ 선보여

SK텔레콤, 팔로워 수 30명 넘으면 ‘마스터’ 승급

SK텔레콤이 재능 공유 서비스 플랫폼 사업에 속도를 낸다.

SK텔레콤은 17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능 콘텐츠를 나누는 플랫폼 ‘히든(hidden)’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히든을 관심사 기반의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시킬 계획이다.

히든은 관심사를 찾고 싶거나 자신의 재능을 외부에 알리고 싶은 이들을 겨냥한 플랫폼이다.

공유할 수 있는 재능 주제는 인테리, 헬스, 요리, 여행 등 다양하다.

재능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은 고객은 글, 사진,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만들어 히든에 올리면 된다. 콘텐츠를 올린 고객의 팔로워 수가 30명을 넘으면 고객은 ‘마스터’로 승급하며 전문가 인증을 받는다.

박재현 SK텔레콤 T밸리 단장은

“기계가 사람의 노동력을 덜어주면서 여가 시간이 늘고, 사람들의 자아실현 욕구는 점점 커진다”면서 “취미를 갖고 싶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수요는 늘어나는데 관심사를 검색하고 연결하는 서비스가 부족해 히든을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히든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의 마스터를 직접 발굴할 것”이라며 “히든을 오픈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 스타트업과 협력하며 공유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곧 재능기반 온라인 마켓 ‘히든몰’을 구축,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히든은 통신사 관계 없이 윈스토어, 구글플레이 등의 앱마켓에서 내려받거나 홈페이지(www.hiddenx.c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뉴시스



기아차 ‘쏘울 터보’ 공개 LA 오토쇼서

기아자동차가 ‘2016 LA 오토쇼’에서 쏘울 터보 모델을 미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6 LA 오토쇼’에서 1858㎡(562평)의 부스를 마련하고 쏘울 터보를 비롯한 총 29대 차량을 전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아차가 이번 모터쇼를 통해 북미 시장에 처음 선보인 쏘울 터보는 최고출력 204마력(ps) 동력성을 지닌 1.6 터보 엔진과 빠른 기어 변속과 가속을 돕는 7단 DCT를 함께 탑재했다.

더불어 선 굵은 디자인의 전면 범퍼와 에어 인테이크 그릴, 듀얼 머플러, 18인치 알로이 휠, D자 모양의 스티어

링 휠 등이 적용됐다. 별도의 T-GDI 엠블럼 및 빨간색 쏘울 로고도 함께 부착했다.

기아차는 오는 12월부터 쏘울 터보 모델의 현지 판매를 시작하고 미국 엔트리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량(CUV) 차급에서 경쟁력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기아차는 또 이번 모터쇼에서 ‘글로벌 신규 커먼 부스’를 처음 선보였다. 부스 내 ▲기아차 브랜드 홍보관 ▲기아 라운지 ▲쏘울 광고의 햄스터 캐릭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할 수 있는 ‘햄스터 포토 부스’ ▲음악과 LED 그래픽이 펼쳐지는 음악 벤치 등 다양한 테마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뉴시스

드론 상용화 첫발... 수색·구호·택배

국토부, 공개 시연회 개최 CJ대한통운, 물류배송 시범서비스

조만간 국내에서도 드론이 수색·구호, 물류배송 등에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오후 2시 강원 영월군에서 드론을 수색 및 구호품 배송 등 조난상황 대처와 물류 배송에 활용하는 공개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연회는 최장 4km, 최고고도 450m 상공 등 현행 항공법상 제한하는 범위에서 이뤄졌다.

먼저 조난지역 내 수색·구호 시연으로 시작했다. 인근지역을 정찰하고

정밀 수색과 통신망 설치, 구호품물류 배송까지 전과정에 드론을 활용했다. 두번째 시연에는 물류업체인 현대로지틱스가 영월터미널 물류집하장에서 출발해 상공 약 3.1km 거리를 비행한 뒤 수취인에게 택배를 전달했다.

조난지역 대처 시연은 수색·통신망을 구축하고 전달하는 등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종합적 비행테스트로 이뤄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드론규제혁신 및 지원방안’

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년 드론 사용사업 등록업체수가 증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치신고 대수는 지난 2013년 195대에서 올해 11월 1765대로 큰 폭 늘었다. 사용사업 업체수도 같은 기간 131곳에서 962곳, 조종자격 취득자수도 52명에서 1216명으로 증가했다.

국내에서 드론을 사용하는 업체는 농업 236곳, 컨테이너제작 631곳, 측량·탐사 46곳, 건축·토목 25곳이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업체 중 CJ대한통운은 이달부터 국내에서는 처

음으로 물류배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영월영업소에서 농업기술센터까지 왕복 5.2km 거리의 영월 시범사업 구역 내에서 이뤄진다. 주 2회 소형물류 배송을 거쳐 운영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실 배송사례 등을 확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로 드론을 택배와 수색·구호 등에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